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설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PT)
작업치료 (OT)
언어치료 (ST)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투원전기

각종 전기공사 증축, 신축, 고장수리

Lic#970726

저렴한 가격
작은 일도 환영

714.337.5112, 562.760.2210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효섭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인사드립니다.

장의사로서 장례 일정을 상담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시신방부사로서 가신 님의 몸을 직접 방부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기술과 정성입니다.

남가주에서 한인으로는 유일합니다. (*현재 저의 파악)

장례는 종교적 문화적 예식입니다.

묘지(Grave)는 묘지공원(Cemetery)에서 구입하셔도

장례예식(Funeral Service)은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동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장, 화장, 장례보험
- 풀러턴 소재 스캇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 LA/OC/San Bernardino/Riverside *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장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714.951.2520 / 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

독일 축구의 영웅 클린스만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지난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KFA)는 전날 "축구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클린스만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예정이다. 연봉 등 계약의 세부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나 벤투 감독의 금액(약 18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임 벤투 감독처럼 한국에서 거주하며 대표팀에 선발할 선수들을 직접 살피고 선발한 선수들을 지도한다는 조건도 더했다.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은 오는 3월 24일(금, 한국 시간)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 친선경기"라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은 계약 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이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클린스만은 세계 축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1987년부터 독일(당시 서독) 대표에 뽑힌 클린스만은 108차례 A매치에 출장해 47골을 터트렸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했고 1990년부터 1994년, 1998년 월드컵에도 3회 연속 나섰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3골을 터트리며 우승을 이끌었다. 1994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어 독일의 3-2 승리를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사진=thedailystar.net

를 이끌기도 했다. 또 1996년 유럽선수권에서 독일의 우승에 핵심 역할을 했다.

다만 감독으로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아 3위에 올려놨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2013년 골드컵 우승,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다. 하지만 클럽팀 감독으로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2008년 바이에른 뮌헨(독일)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됐고, 2019년 11월에는 헤르타 베를린(독일) 사령탑에 부임했지만 구단과 갈등 끝에 77일 만에 물러났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겨울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 기술연구그룹(TSG) 일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팀을 이끈 경험이 없어 실전 지휘 능력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다만, 미하엘 웨리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독일 출신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강점도 있다.